

목포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연내 가동

전국 최초 357억 투입 6월 완공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입주 완료
해상풍력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목포시가 국내 최초 해상풍력 플랫폼센터를 지난 6월 준공된데 이어 연내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센터 준공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목포가 해상풍력 산업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플랫폼센터는 총사업비 35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755㎡, 지상 4층 규모로 목포신항에 건립됐다.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운반·설치부터 발전단지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기업 입주 공간과 회의실, 북카페 등 기업·연구기관·시민을 아우르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입주를 완료하고 전남도, 목포시와 함께 기업 입주 방향과 향후 운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는 연내에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기업 입주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발전사, 기자재사, 유지보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플랫폼센터 입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업 입주 후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다양한 국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조립·운반·설치가 가능한 특화 항만으로, 약 5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보유해 산업생태계 조성에 최적화돼 있다.

플랫폼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국책연구과제 수행, 항만물류 시스템 고도화,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등 해상풍력 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목포시는 향후 플랫폼센터를 해상풍력 특별법상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해 국가 연구예산 확보와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최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해상풍력 세계 시장 선도라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목포가 전국 유일의 전용항만-배후단지-연구기관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관계자는 “플랫폼센터의 본격 운영은 신안 3.2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가 전용부두 확보 등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암군, 국토부 ‘제4기 수소도시’ 지정됐다

수도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영암군이 국토교통부의 ‘제4기 수소도시’로 지정돼 사업예산 39억원을 확보해 주목을 끌고 있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곳으로, 제3기까지 전국 12곳이 지정됐고, 제4기 지정도시는 영암군과 청주시 2곳이다.

수소도시 지정으로 영암군은 국비 포함 총 350억원을 투입해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주거·산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영암군 수소도시의 핵심 내용은 삼호읍 삼포지구에 ▲농업부산물 활용 수소생산시설 1기 설치 ▲수소 배관망 1.7km 구축 및 수소충전소 1개소

설치 ▲수소연료전지 생산 전기·열 기업도시 공급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연계사업을 진행해 수소버스 2대 도입, 공공·민간 차량 7대 수소차 전환 등 수소차 보급 확대도 병행한다.

특히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대불국가산단 조선업 용접용 가스로 공급하는 지역 특화사업을 도입해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효과까지 거둘 예정이다.

수소도시 선정과 관련 우승회 영암군수는 “지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전남 서부권 최초 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원불교 교구와 해양치유 활성화 협약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불교 광주전남교구와 손을 잡았다.

〈사진〉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오은도 교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소속 교무 및 교도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완도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재)원불교 광주전남교

구 소속 교무, 교도의 복지 향상 및 이용료 할인 혜택 제공 ▲해양치유 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행사, 워크숍, 교육, 회의 등 장소 활용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시대정신에 호응하고 민의를 돌보며 교화, 교육, 자선 활동에 앞장서시는 (재)원불교 광주전남교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원불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화에 힘쓰실 수 있도록 완도에서만 할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협조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부동산구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 조성

25명 구성 민관 협의회 발족 가동
사업계획·이익공유 방안 창구 역할

해남군이 부동산구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해남군은 최근 민간 공동위원장과 전남도·해남군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해남군은 산이면 부동산구 간척지 일원 803ha에 600MW급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이익공유방안 논의, 지역 상생 발전 전략 마련 등 집적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공모 기준을 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조원 규모를 투자할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해남군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남 부동산구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발족했다. <해남군 제공>

생산된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전용 산업단지로 우선 공급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간척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해남이 처음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농어촌 대전환의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주한대사부인회 ‘신안 꽃 예술 전시회’ 개막

19일까지 황해교류박물관

주한대사부인들의 꽃 작품과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신안 황해교류박물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네덜란드, 호주, 일본, 튀르키예, 콜롬비아 등 13개국 주한 대사 부인이 참석해 신안의 가을을 더욱 빛냈다.

특히 이번 전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리는 ‘제25회 국제꽃장식대회’의 서막을 여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작품들은 서울 방식꽃예술원에서 진행된 사전 워크숍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국제꽃

장식대회 기간까지 특별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세계 각국의 예술적 감각을 전한다.

방식 방식예술정원장은 “13개국 글로벌 여성 리더들이 함께 만든 이번 전시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관람객들이 다양한 나라의 작품을 감상하며 ‘국제 특별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13개국 주한대사 부인들이 신안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안을 꽃과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관광과 정원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